

다니엘서

■ 벨사살의 교만(220518)

1. 다니엘서의 구조(Chiastic Structure)

- A. 하나님의 () : 거대 신상(2장)
- B. 성도의 () : 다니엘의 세 친구들(3장)
- C. 이방 왕의 () : 느부갓네살(4장)
- C.' 이방 왕의 () : 벨사살(5장)
- B.' 성도의 () : 다니엘(6장)
- A.' 하나님의 () : 네 짐승(7장)

2. 역사적인 배경

- 2.1. 실질적 바벨론의 초대 왕 느부갓네살의 죽음(BC 562)
- 2.2. 그의 아들 아멜마르둑(에윌므로닥[왕하 25:27])이 왕위에 오름
- 2.3. 네리글리사르스가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오름(BC 560)
- 2.4. 그의 사후에 아들 라바쉬마르둑이 왕이 됨
- 2.5. 그를 죽이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올라 17년을 통치
 - 2.5.1. 처음 7년 동안 직접 통치 그 이후로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 섭정
 - 2.5.2. 페르시아 군대에 패배하고, 벨사살이 죽임을 당함(BC 539)
- 2.6.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나란히 등장
 - 3.1.1.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 바벨론 제국 전체를 요약
 - 3.1.2. 이들의 공통점은 ()!

3. 교만한 왕 벨사살(5:1-4)

- 3.1.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벌임
 - 3.1.1. 천 명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참석(5:1)
 - 3.1.2. 우상제와의 깊은 관련이 있는 축제(5:4)
 - 3.1.3. 어려운 시기 자신의 능력을 ()하고, 단합을 도모
- 3.2. 벨사살의 허세와 도발
 - 3.2.1. 느부갓네살이 탈취하여 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져오게 함
 - 3.2.2. 이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, 이방의 신들을 찬양
 - 3.2.3.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, 찬양했던 왕
 - 3.2.4. 느부갓네살보다 더욱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 → ()의 표현

4. 벽면에 새겨진 글씨(5:5-12)

- 4.1.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면에 글을 씀
- 4.2. 큰 ()을 불러 일으킴(5:6) → 벨사살의 교만 뒤에 감추어진 실제 모습
- 4.3. 아무도 벽에 새겨진 글자와 해석을 제공하지 못함

4.4. 큰 포상을 약속하며 해석할 자를 찾음

4.4.1. 이인자가 아니라, “셋째 통치자”(5:7)

4.4.2. 1인자: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 → 2인자: 섭정 왕 벨사살

4.5. 왕비 곧 왕후가 등장하여 다니엘을 소개함

4.5.1. “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”(5:11; 4:8, 9, 18)

4.5.2. 다니엘의 나이

A.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해가 BC 605년

B. 당시 다니엘의 나이 14~15세

C. 벨사살이 살해된 해가 BC 539년

D. 따라서 단 5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()세!

4.5.3. 느부갓네살의 때나 벨사살의 때나 다니엘은 한결 같이 ()한 사람!

5. 다니엘의 해석(5:13-28)

5.1. 느부갓네살 때와는 달리 엄격한 분위기(5:17)

5.2.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킴

5.2.1. 하나님께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주심

5.2.2. 스스로 교만하였다가 폐위됨

5.2.3. 뉘우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됨

5.3. 다니엘의 책망

5.3.1.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음

5.3.2.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, 하나님을 인정치 않음

5.3.3.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()과 그의 ()을 결정하시는 분(5:23)

5.4. 벽면에 새겨진 아람어: מְנַא מְנַא חֲקַל וּפְרִסִין

5.4.1. “메네”—“()”의 분사형 → 므나

5.4.2. “데겔”—“()”의 분사형 → 세겔

5.4.3. “바르신”—“()”의 분사형 → 1/2 세겔

5.5. 다니엘의 해석

5.5.1. 정해졌도다! 왕의 통치기간이 계산이 되어 정해졌도다!

5.5.2. 왕이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로다!

5.5.3. 그러므로 이제 왕의 나라는 나뉘어져 망하게 될 것이로다!

6.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루어짐(5:29-31)

6.1.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포상함

6.2. 그날 밤에 벨사살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함